

문학과 치유

- 위기의 시대, 청년

담당교수: 문선영



김애란 <자오선이 지나갈 때>

- <베타별이 자오선을 지나갈 때, 내게>



나는 성격도 원만했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인간이라 생각해 왔었다. 그래서 처음 서류 심사에 떨어졌을 때 ‘원래 몇 번씩은 다들 떨어진단잖아?’ 생각했다. 그 다음 떨어졌을 때 ‘혹시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운전면허를 땀다. 또 한번 떨어졌을 땐 ‘혹시 내 인상이 안 좋나?’해서 사진을 다시 찍었다. 열 번 넘게 낙방하자, 나는 혹시 내 전공이 국문학이기 때문이 아닐까 고민했다. 그러자 영문학에 다니는 친구가 말했다. “영문과도 마찬가지로. 요새 영어는 아무나 하거든.” 철학과에 다니는 친구는 말했다. “그래도 네가 나보단 낫지 않니?” 그 말을 똑같이 법학과에 다니는 친구에게 하자 그는 콩초를 힘껏 빨며 웅얼거렸다. “그것도 옛날 얘기지. 요샌 고시도 잘사는 집 애들이 잘 붙어. 장거리 경주라 누가 뒤를 받쳐줘야 하거든.” 한 스무 번쯤 떨어졌을 땐 ‘내가 너무 눈이 높은 것은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작지만 건실한 회사에 부지런히 원서를 넣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여 서른번 째 낙방을 했을 즈음, 나는 머리통을 감싸 안고 중얼거렸다.

“정말 나는 괴물이 아닐까?”

(김애란, <자오선을 지나갈 때>, 『침이 고인다』, 문학과지성사, 2007, p.120.)

- 사회가 정해 놓은 기준선에 미달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책
-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자가 스스로를 낙오자 혹은 잉여적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부 2학년 때부터 해왔던 학원 강사직을 취업을 위해 그만둔 상태였던 나는, 또다시 학원 강사직 면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서너 군데 면접을 본 나는 전철을 타고 “서울 북쪽 어딘가에”(p.117)있는 “내 방”으로 귀가하는 중이다. 그때 객차 안에서 ‘노랑진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나는 불현듯 과거를 회상한다.

- ‘자오선’ : ‘노량진’

- 잠시 머무르고 싶지만, 발목을 잡혀 벗어나기 쉽지 않은 곳
- 누구나 정착이 아닌 스쳐 지나가기를 원하는 곳,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곳
- 떠남과 만남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짐, ‘지나가는 곳에서의 생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가 아는 곳
- 주변부에서 탈출하여 중심부로 편입하기를 희망하는 곳

- 공간적 의미 뿐 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시간이 있는 곳

나는 자꾸만 주변부로 밀려났다. 나는 수학이 약하니까 꼭 들어야 하는데, 지난달 수업이랑 이어지니까 정말 꼭 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곳에 있던 천여명의 사람들에게도 그 수업을 꼭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나를 힘껏 밀었다. 머릿속이 핑-하고 돌았다. 곧이어 헛구역질이 났다. 조금만 더 있다간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 허공 사이로 커다란 손 하나가 불쑥 넘어왔다.

“아영아, 내 손 잡아.”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온 힘을 다해 나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pp.140-141)

2005년 가을, 사람들 틈에 끼어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노량진의 이름을 생각했다. 다리 량(梁) 자와 나루터 진(津) 자가 동시에 들어간 곳. 1999년 내가 지나가는 곳이라 믿었던 곳,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곳, 하지만 그곳이 정말 ‘지나가기만’ 하는 곳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왜 여전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걸까. 짧은 정차 후 사람들이 물밀 듯 들어왔다. 한 여자가 내 발을 밟으며 소리쳤다. “밀지 마요!” 우주 먼 곳 아직 이름을 가져본 적 없는 항성 하나가 반짝하고 빛났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득히 ‘아영아, 내 손 잡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p.148)